

제123호(2016. 5. 13.)

지역 단위 6차산업화의 추진 방향과 과제

정도채 성주인 심재현



1. 6차산업화 정책 동향과 성과	1
2. 국내외 6차산업화 성공 사례와 시사점	10
3. 지역 단위 6차산업화 확산을 위한 과제	14

감 수	송미령	선임연구위원	061-820-2011	mrsong@krei.re.kr
내용 문의	정도채	부연구위원	061-820-2107	dcchung@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약

○ **6차산업화 정책 추진 결과, 관련 활동의 양적 성장과 농가 및 농업법인의 소득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러 가지 개선 과제가 제기**

- 6차산업화에 참여하는 경영체의 수가 증가하여 부가가치도 증가하였으며, 6차산업화 참여 경영체의 수익률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음.
- 외연 확대에도 불구하고, 6차산업화 제품이나 서비스는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며 자생력이 낮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6차산업화의 질적 성장과 성과 확산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현장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나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어서, 지역 단위 정책 추진체계 정립이 요구됨.

○ **개별 농가 농외소득 지원에서 지역 단위 6차산업화 확산으로 정책이 전환되는 시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단위 6차산업화를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관광·수출 등에 종사하는 경영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성, 공동 활동 추진 및 가치사슬 형성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 단위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6차산업 중심의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동안 추진한 개별 농가 중심의 6차산업화 정책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으로서 지역 단위 접근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선도 사례를 통해 지역 단위 6차산업화 접근 방향 모색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지역 단위 접근은 6차산업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효한 전략이며,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연계·협력을 이루는 과정에서 지역 내 새로운 부가가치가 축적될 수 있음.
- 민간 주체 중심의 자발적 협력 관계가 활발하게 구축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 **6차산업화를 통해 지역 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정책 과제들을 제시**

- 선도 업체 중심으로 추진해온 기존 6차산업화 모델을 지역 내 협업과 분업 체계 구축 방식으로 전환하고 민간 주체들이 주도하는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
- 6차산업화 추진 지역들이 다양한 분야의 중앙정부 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
- 공급 중심의 6차산업화 확대 전략에서 벗어나 6차산업 관련 제품이 차별성 있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독자적 시장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소비 기반을 확충
- 6차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도시와 농촌의 파트너십 구축 전략을 마련

1. 6차산업화 정책 동향과 성과

1.1. 6차산업화 정책 추진 동향

□ 경영 다각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6차산업화 정책 추진

- 현 정부 들어서 시장개방, 고령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농업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6차산업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 6차산업화를 통해 농촌 지역의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농식품 가공·유통, 농촌관광 등의 분야에서 농가, 경영체 등 생산 주체들의 경영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
 - 향토산업 육성사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제조·가공·유통 및 체험·관광 부문의 생산 주체 역량 강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 6차산업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인증사업자로 지정, 우수 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를 운영(2016년 기준 802개 우수 경영체 인증)
 - 이외에도 경영체 컨설팅 지원, 사업자 육성자금 지원, 수출 지원 등 6차산업 생산 주체들의 경영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 궁극적으로 농업과 연계한 농촌의 자생적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으로 농촌 경제의 자족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6차산업화 정책의 의의가 있음.

□ 최근에는 개별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 위주로 추진해오던 6차산업화 정책을 지역 단위 6차산업화로 발전시켜 관련 정책을 추진

- 기존 농가 경영 다각화 중심의 6차산업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6차산업을 확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식품부는 금년부터 지역 단위 6차산업화 정책을 추진

“

개별 농가 중심에서
지역 단위
6차산업화로
정책 전환

”

지역 단위
6차산업화의 올바른
추진 방향에 대한
고찰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정의에 따르면 지역 단위 6차산업화는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관광·수출 등에 종사하는 경영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성, 가치사슬 형성 등을 통해 집합적 활동에 기반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 단위 시스템’으로 규정할 수 있음.

- 6차산업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 올해 20여 곳의 지역 단위 6차산업화 시스템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6차산업 인증 사업자 간 네트워크, 규제 특례 등과 연계한 지역단위 6차산업 육성 추진
 - 지역 농협이 핵심 주체로 참여하여 원료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공, 유통 부문에서 지역 내 가치사슬의 형성을 지원하도록 함.

□ 지역 단위 6차산업화의 지향점 및 추진 방향에 대한 고찰 필요

- 그동안 6차산업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농산물 가공, 직판, 농촌관광과 같은 다양한 융복합 활동에 참여하는 농가와 법인이 늘어나는 등 6차산업의 외연 성장이 이루어졌으나, 동시에 여러 개선 과제들도 제기되어 왔음.
- 최근 제시된 지역 단위 6차산업화 접근이 그동안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해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적합한 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1.2. 6차산업화 정책의 성과

□ 6차산업화 참여 주체의 증가 및 관련 부가가치 창출

- 6차산업화에 해당하는 농업 다각화 활동 참여 농가 및 법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농업 생산 이외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농업 법인 수는 5,249개로 전체 농업법인의 62.8%를 차지하였으나, 2014년에는 10,582개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농업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0.3%로 높아짐.

표 1. 다각화 활동 참여 농업법인 현황

(단위 : 개, %, %p)

구분	2010(A)		2014(B)		증감		증감률 (D-C)
	법인 수	구성비 (C)	법인 수	구성비 (D)	증감 수 (B-A)	구성비	
법인 수	8,361	100.0	15,043	100.0	6,682	100.0	0.0
농업 생산	3,112	37.2	4,461	29.7	1,349	20.2	-7.6
농업 생산 이외	5,249	62.8	10,582	70.3	5,333	79.8	7.6
가공 판매	1,568	18.8	3,154	21.0	1,586	23.7	2.2
유통 판매	1,730	20.7	4,100	27.3	2,370	35.5	6.6
농업서비스	613	7.3	942	6.3	329	4.9	-1.1
기 타	1,338	16.0	2,386	15.9	1,048	15.7	-0.1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어업법인조사.

- 농림업이 정체되는 것과는 달리, 농업 경영체가 창출하는 농업 생산 외(농산물가공·유통·음식·관광 서비스업 등) 부가가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농업법인의 농업 생산 외 부가가치¹⁾
: 약 1조 2,689억('11) → 1조 7,559억('13)
 - 농업 생산 외 부가가치 증가율('11~'13) 38.4% vs 농림업 부가가치 증가율 2.5%

표 2. 농업법인의 농업 생산 외 활동 부가가치 증가

구 분	2011	2012	2013	증가율 ('11→'13)
농업 생산 외 활동 참여 법인 수	4,497	5,678	6,938	54.3%
농업 생산 외 부가가치 추정(십억)	1,268.9	1,521.6	1,755.9	38.4%
농림업 전체 부가가치(십억)	26,721	27,359	27,376	2.5%

주: 농업 생산 외 활동은 농어업 법인조사의 가공·유통·음식·관광 활동으로 한정.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어업법인조사.

1) 부가가치는 통계청 농어업법인조사의 농어업법인 중 가공·유통·음식·관광업의 매출이 발생하는 법인들에 대하여 부가가치 계산법 중 가산법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측정함(부가가치=경상이익+인건비+임차료+조세·공과금+순금융비용+감가상각비).

6차산업화 참여
경영체 및 관련
부가가치 증가

“
6차산업화,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

□ 6차산업화를 통해 참여 주체는 기존 농업 생산을 넘는 수익을 창출

- 농업 생산의 성과보다 6차산업화 참여 농가 및 법인들의 수익률이 높아 지속적으로 6차산업화 양적 성장을 시사함.
 - 6차산업화 참여 농가의 평균 수익률(54.5%) vs 농업생산 농가의 평균 수익률(32.0%)(2014년 기준)
 - 6차산업화 참여 법인 평균 매출액(16.8억) vs 농업생산 법인 평균 매출액(11.7억)(2014년 기준)

표 3. 6차산업화 참여 농가의 매출, 소득, 수익률

구분	매출	경영비	전체 (b+c+d)	농업 생산 (b+c)	소득				수익률 (소득/ 매출)
					출하 (b)	직거래/ 직판장 (c)	농업 생산 외 6차산업화 (d)	(c+d)	
전체	3,838	1,745	2,093	1,582	749	833	512	1,344	54.5
농산물 가공	3,403	1,461	1,941	1,731	788	943	210	1,153	57.1
직판장/ 직매장	3,839	1,852	1,987	1,856	405	1,450	131	1,582	51.8
농가식당	6,422	3,430	2,992	615	236	379	2,377	2,756	46.6
농가민박	3,525	1,560	1,965	822	360	462	1,142	1,604	55.7
체험/관광	6,871	2,995	3,876	2,222	823	1,399	1,654	3,053	56.4

자료: 농진청(2014). 농업·농촌 6차산업화 기초실태조사 원자료 가공.

□ 6차산업 활동은 고용 창출 등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 유사한 기능의 경제활동에 비해 고용 창출을 비롯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큼.
 - 예컨대, 유통부문의 부가가치 및 매출 10억 원당 고용 창출을 보면 6차산업 업체가 타 부문 유통업체보다 더 많은 고용을 창출

표 4. 6차산업 주체와 유통업체 유형별 고용창출 효과 비교

	6차산업 (유통)	백화점	대형 마트	슈퍼 마켓	그 외 기타 종합소매업	도소매업 평균
부가가치* 10억 원당 고용	21.0	1.9	6.0	16.2	15.2	12.2
매출 10억 원당 고용	2.6	0.9	1.9	3.3	5.8	3.2

주: 유통업의 부가가치는 매출총이익과 동일하므로 매출총이익으로 부가가치 계산.

자료: 통계청(2014). 농업법인조사 원자료 가공.

□ 농가 및 농업법인이 소득 개선 등의 효과로 인해 6차산업화의 인지도 및 참여 의향이 높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인 394명을 대상으로 6차산업화 정책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97.4%에 달하는 농업인들이 6차산업화의 개념을 알고 있다고 응답함.

– 동 조사에서 응답자 중 70% 이상이 6차산업화에 대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1.3. 6차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과제

□ 6차산업화 확산에도 불구하고 개별 주체들의 성장은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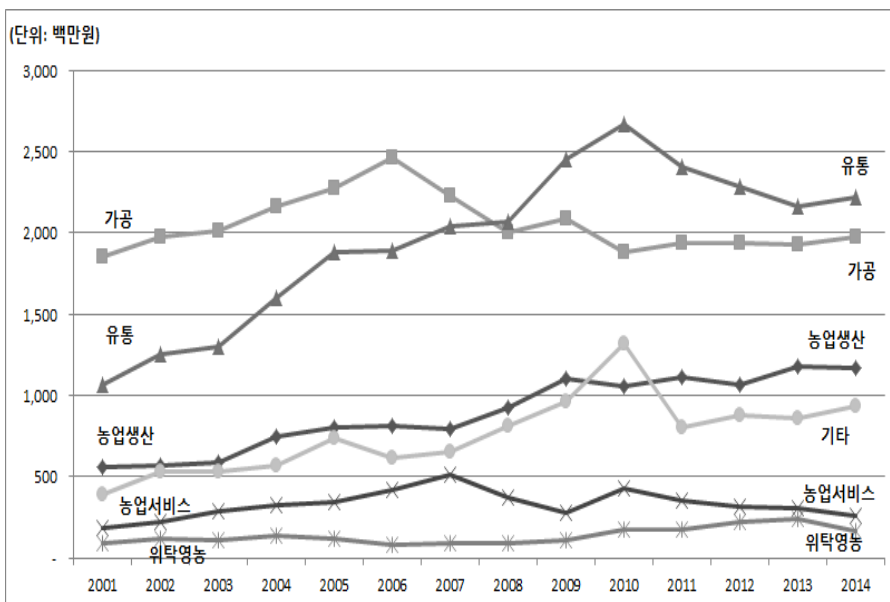
- 6차산업화 분야에 참여하는 농업법인들의 연도별 매출액 증가세가 최근 들어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 가공, 유통, 서비스 부문의 총량적인 매출액은 증가하지만, 업체당 매출액은 전반적으로 감소 또는 정체되는 상황임.

– 농촌가공산업의 경영체당 매출액: 24.6억('06) → 19.8억('14)

–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해온 유통분야도 2010년 이래로 감소세

그림 1. 6차산업 법인당 평균 매출액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업법인조사.

6차산업화 외연
성장은 달성하였으나
질적 성장은 미흡한
실정

“
현재 6차산업화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 6차산업화 참여 사업체가 늘고 있지만, 업체들 다수는 사업 성장에 한계를 겪고 있음.
 - 관련 업체들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일부 선도 업체를 제외한 다수 업체들은 제대로 사업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임.
 - 연간 매출액 1억 원 미만 법인 수가 2000년 512개에서 2014년 4,741개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 565개이던 적자 업체 수도 2014년에는 5,205개로 급증

표 5.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 따른 업체 구분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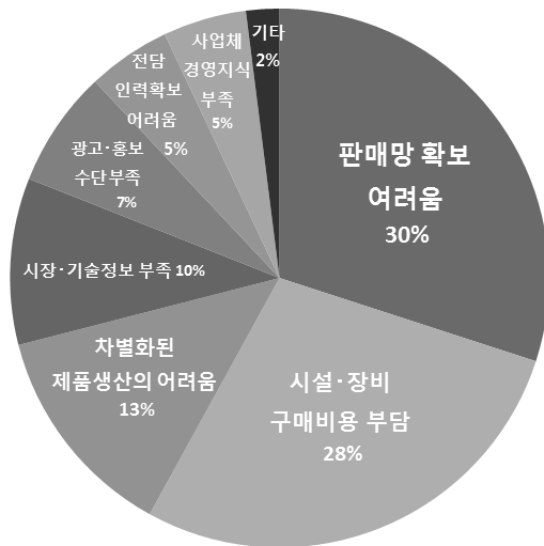
구 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1억 원 미만 업체 수	10억 원 이상 업체 수	적자 업체 수	5억 원 이상 흑자 업체 수
2000년	512	332	565	13
2005년	560	734	786	44
2010년	2,494	2,126	2,687	152
2014년	4,714	3,738	5,205	337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이다』 수정 및 보완.

▣ 현재의 6차산업화 수준은 공급자 위주 시장으로 소비자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구에 대응하지 못함

- 6차산업화에 참여하려는 농가 및 법인의 수요는 크나,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지 못해 지속적인 판로나 제품의 차별성을 갖지 못하면서,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6차산업화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은 높으나 구체적인 참여 방법이나 지역 내 관련 경제활동 주체들과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부족한 실정임.
 - 6차산업화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판매망 확보, 차별화된 제품 생산,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의 시장·기술 정보 부족 등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함.

그림 2. 6차산업화 추진 시 가장 어려운 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농업인 394명 대상 6차산업화 인지도 설문조사.

- 농산물 가공 산업의 경우도 다양하고 차별화된 제품의 생산보다는 대부분 단순 가공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농진청(2014) 실태조사 결과, 생산과 가공을 수행하여 6차산업화에 참여하는 농가의 경우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낮은 건조, 세정, 절단, 혼합 등의 단순 가공작업 비중이 84.2%를 차지하며, 법인의 경우도 49.9%가 단순 가공에 그치고 있음.
- 농가 단위의 6차산업화도 늘어났지만, 대부분은 상업적 목적보다는 지인에게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는 수준임.
 - 농축산물 직거래의 경우도 고객은 일반소비자 개인인 경우가 94.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는 경로 1순위는 ‘지인의 요청’인 경우가 8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농진청 2014).
- 차별화되지 못한 제품 및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생산되지만 6차산업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나 충성도는 낮은 실정임.
 - 일례로, 국민여행실태조사(2014)를 보면 “여행지별 가구여행 재방문 의향”을 조사한 결과 대도시는 3.99점, 중소도시는 3.93점, 농촌(읍면)은 3.8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며, 농촌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도 또한 점차 하락하는 추세임.
 - 상대적으로 낮은 관광인프라 수준과 각종 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부족 등이 농촌관광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이유라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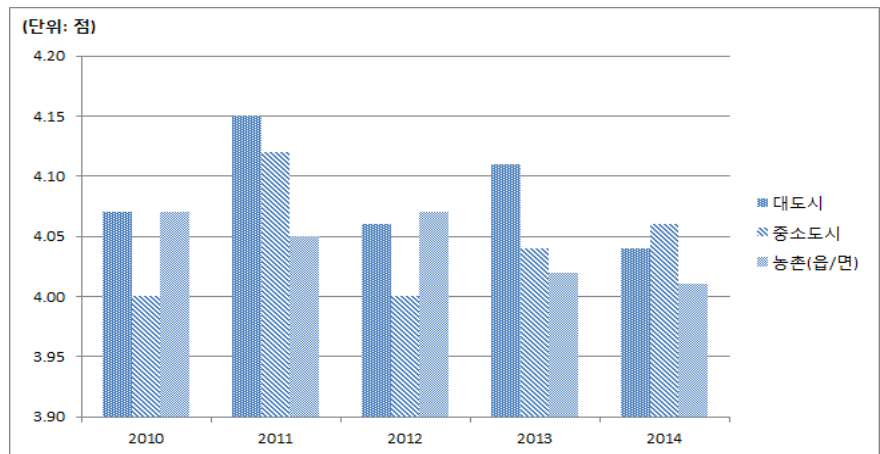
“

6차산업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음

”

지역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필요

그림 3. 목적지별 가구여행 전반적 만족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 연도) 국민여행실태 조사.

표 6. 농촌관광의 종합 만족도 및 부문별 만족도

(단위: 점)

종합 만족도	농촌 관광 인프라	접근성	각종 관광 콘텐츠/ 프로그램	안내/정보	마을자원/ 매력
76.1	69.7	73.4	60.6	75.1	81.6

자료: 농촌진흥청(2014), 농촌관광실태 조사.

□ 6차산업화의 확산을 뒷받침할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미비

- 도별 6차산업화 지원센터가 활동 중이지만, 현장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현재 광역 단위로 설치된 6차산업화 지원센터의 인력과 자원만으로는 시·군 단위 이하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시·군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6차산업화를 지원하고 있는 곳은 완주군, 진안군 등 소수 시·군에 그치고 있음.

□ 다수 사업체들이 자생력이 부족하며, 6차산업화를 통한 지역 내 파급효과는 제한적

- 일부 선도 업체들을 중심으로 농가를 비롯한 지역 주체들과 부분적인 연계 관계를 형성하지만, 농가의 참여는 제한적인 수준의 협력(일부 원료 산물 공급 등)에 그치고 있음.
 - 지역의 다양한 생산활동이 연계되는 가운데 6차산업화를 발전시키는 사례는 드문 실정이며,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지역에서 6차산업 생태계가 형성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함.
 - 2014년, 2015년 농식품부가 선정한 6차산업화 우수사례(69건) 중 지역 단위에서 가치 사슬이 집적·확산되는 사례는 19.0%(13건)에 불과하며, 이 중 절반은 (6건) 정부·지자체 주도의 사업단 형태이고, 대부분의 사례들은 개별 경영체 단위에서 6차산업화를 수행하는 경우임.
- 6차산업화 정책 대상이 되는 농업 경영체의 경우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생력을 갖추지 못함.
 - 일례로 매출액 상위 10%인 농업법인의 경우 하위 집단에 비해 자체 출자금도 많지만 정부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일부 선도 사업체 중에도 정부 지원에 의지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살아남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러한 상황은 6차산업 부문의 경우에도 유사한 것으로 짐작됨.

“

6차산업화 경영체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파급 효과 제고 필요

”

표 7. 농업법인당 출자금 및 정부 지원금

단위: 백만 원

구 분		매출액 기준 농업법인 구분			
		상위 10%	10~30%	30~70%	하위 30%
법인당 관련 지표	정부보조금 누계	389.4	233.8	163.6	104.7
	정부융자금 잔액	300.5	60.8	22.9	7.2
	법인당 출자금	787.3	351.5	218.6	148.7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이다』 수정 및 보완.

“
지역이 경영체 및
산업 경쟁력의
원천임을 고려할 때,
지역 단위 접근은
유효한 전략임

”

2. 국내외 6차산업화 성공 사례와 시사점

□ 경쟁력의 원천인 혁신은 지역을 무대로 창출되며, 이는 6차산업화 추진 과정에도 적용 가능

- 국내외 선진 사례들을 보면, 개별 주체나 지역 산업의 경쟁력은 경제 주체들의 상호작용 및 학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혁신의 창출 능력에 의해 좌우됨.
 - 이러한 상호작용은 주체들 간 경제·사회·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하는 지역에 기반하여 활성화되므로,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지역 단위의 접근이 요구됨.
- 농업 및 농촌 산업의 육성 전략과 관련해서도, 클러스터, 지역혁신 체계 등에서 나타난 선진국 경험이 유효함.
 - 네덜란드의 푸드밸리, 덴마크의 외레순 클러스터,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등 세계 유수의 농산업 클러스터들은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농업 및 지역 연관 산업의 발전을 꾀함.
 -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 정부에 의해 추진된 농촌산업 육성사업은 지역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주체 간 네트워킹을 활성화하여 지역 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6차산업화 정책이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관점하에 지역 단위에서 주체들의 자생력을 갖추는데 초점을 두어야 함.
 - 개별 경영체들의 다각화를 지원하는 단계에서 지역 단위의 경쟁력 강화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

□ 6차산업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우 주체들 간 다양한 연계·협력 관계가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음.

- 이탈리아 토스카나 주 리보르노 와인루트는 지역 내 이(異)업종 간 집합적 활동에 기반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를 보여줌.

- 리보르노 와인루트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주 14개 와인루트 중 가장 성공적으로 꼽히는 사례로, 와인재배, 와이너리 방문, 체험, 직판, 농가레스토랑, 숙박·체험 관광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프로그램이 지역 와인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운영
 - 개별 경영체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프로그램을 공동의 노력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순환됨.
 - 이러한 집합적 활동은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 내 다양한 생산 주체들의 협력 관계에 기반하고 있음.
- 전북 완주 로컬푸드는 직거래를 중심으로 다양한 6차산업화 활동을 연계하여 지역 내 주체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부가가치의 지역 내 순환을 보여주는 사례임.
- 지역 거점가공센터 조성, 가공 공동체 육성, 소비자 대상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로컬푸드를 매개로 지역의 다양한 생산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조직화하는 지역 단위 6차산업 공동체 형태로 발전
 - 농가 및 공동체는 각각의 역량에 따라 단순 농산물 판매를 비롯하여 가공, 체험·관광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6차산업 가치사슬에 참여 가능
 - 참여 농가와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순익의 90%가 참여 농가에 환원되어 6차산업 중심의 지역 주체들 간 연계에 기반한 지역 순환 경제 체제 가능성을 보여줌.

“

지역 내 주체들 간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가능

”

표 8. 완주 로컬푸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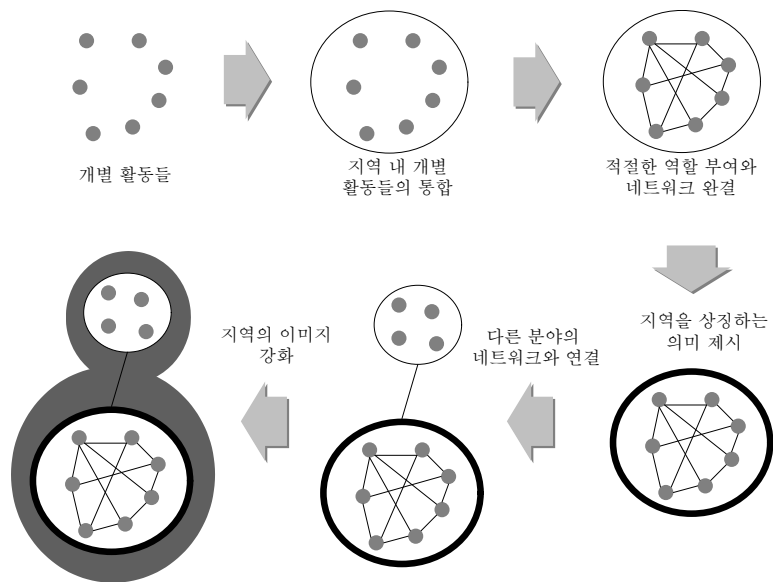
구 분	2013	2014	2015(10월)
매출액(백만)	22,028	33,834	35,377
참여농가	1,876	2,640	3,152

자료: 완주군 내부 자료(2013~2015).

- 이탈리아 와인루트 사례에서와 같이 지역의 다양한 부문에 종사하는 주체들이 참여함으로써 가치사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내발적 발전 모델(그림 4 참조)이 6차산업화 정책의 지향점이 될 수 있음.
- 또한 개별 경영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활동들이 관련 주체들의 컨소시엄 등을 통해 지역 단위에서 기획, 추진되는 과정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지역 주체 중심의
자발적 연계·협력을
통해 6차산업의
지속성 확보 및 성과
창출 가능

그림 4. 지역 내 순환 관계의 형성



자료: Brunori and Rossi(2000)를 바탕으로 재작성.

□ 지역 주체들 간 연계·협력은 민간 주도하에 자발적 방식으로 추진될 때 지속성 확보 및 성과 창출이 가능

- 일본 히로시마의 세라고원 6차산업 네트워크는 민간 주도의 이업종 간 교류와 정부 정책의 뒷받침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보여주는 사례임.
 - 세라고원은 농업과 관련 가공업이 발달하였으나, 산악 지역이라는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생산 주체들 간 연계가 발달하지 못했음.
 - 1999년 재배농가(과수, 화훼), 직매장, 가공업체, 레스토랑 등 민간 주체들이 중추가 되는 협의체인 세라고원 6차산업 네트워크를 결성
 - 2006년 회원들의 공동출자로 공동 판매시설인 유메 고원시장을 설립하였고, 공동 판매와 더불어 업종 간 교류를 통해 새로운 가공상품(과실 음료 등) 등을 개발. 지속적으로 매출 및 지역 방문객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앞서 살펴보았던 리보르노 와인루트 또한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인 민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지역 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집합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민간 주체 중심의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는 관 주도의 혁신 네트워크 형성을 피하는 기존 정책 추진 방식과 구분되며, 이에 지역 단위 6차산업화 추진 과정에서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의 역할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됨.

□ 6차산업화가 지역에 확산되어 농가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파급효과 창출

- 완주군 두레 농장은 6차산업화를 통해 기존 농촌 복지 사업의 성과가 개선된 사례임.
 - 2009년부터 노인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두레 농장은 공공 주체가 제공하는 농업 생산 시설에서 노인과 귀농인이 공동으로 농사를 짓는 형태로 완주군 내 10곳에서 운영되고 있음.
 - 사업 초기에 판매 가격의 변동에 따라 소득 불안정성이 높았으나,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판매를 시작하면서 소득이 상승한 채로 안정화 되고, 마을 공동체의 활력도 높아짐.
-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궁골식품’은 귀촌 가구가 마을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6차산업화를 추진하여 마을 내 고령 농가의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임.
 - 귀촌 가구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마을의 주력 생산품인 콩의 판로 개척을 위해 메주 등의 가공 제품을 생산·판매한 것에서 6차산업화가 시작됨. 2013년 2억 7천만 원이던 매출이 2014년 4억 2천만 원으로 1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함.
 - 사용하는 원료 전체를 계약재배를 통해 지역 농가로부터 확보하고, 가공·체험에 필요한 일손 대부분을 지역의 노인 고용을 통해 충당하고 있어, 6차산업화가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줌.
-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촌의 다양한 주체들을 효과적으로 6차산업화 가치 사슬에 참여시킴으로써 소득 창출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 효과도 동시에 얻게 됨.

“

6차산업화가
지역 내에
확산되면서
농촌 지역사회
활력 제고

”

지역 내 협업 및
분업 체계 구축으로
지역 단위
경쟁력 확보

3. 지역 단위의 6차산업화 확산을 위한 과제

3.1. 정책 방향과 원칙

▣ 개별 농가, 사업체 단위 경쟁력만이 아니라 이들을 아우르는 지역 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궁극적인 정책 지향점

-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체, 농가 등 지역 주체들의 주도로 6차산업화가 추진되도록 유도하며, 정부는 기본적 원칙과 방향 제시, 제도적 기반 구축에 주력
 - 6차산업화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추진 전략은 지역이 중심이 되어 마련토록 하며, 지역 내 협업 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등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정부가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둠.
- 특히 이전까지 추진해온 농외소득 및 농촌 산업 육성 정책 등과 비교해서 지역 단위 6차산업화 정책을 통해 다음의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음.
 - 개별 경영체나 농가의 소득 육성에 머물지 않고 지역 수준의 경쟁력 확보와 6차산업 기반 형성을 지향함.
 - 공공 주도 및 공급 중심 정책 추진 방식을 넘어서 민간 주도 및 소비 기반 확충으로 정책의 무게를 옮기며, 도농 연계를 통한 6차산업 활성화 전략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2. 지역 단위 6차산업화를 위한 정책 과제

▣ 선도 업체가 주도해온 기존 6차산업화 모델을 지역 내 협업과 분업 체계 구축 방식으로 전환

- 지금까지는 역량 있는 선도 사업체를 중심으로 융복합산업 성장을 이끌어왔는데, 앞으로는 지역 단위의 협력과 분업 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함.
 - 개별 농가 단위에서까지 23차 융복합 활동에 일률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는 것은 다수 농가의 여건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

- 농산물 생산에 주력할 농가와 가공·체험관광 등의 다각화를 확대할 농가 및 법인을 구분하여 지역 단위에서 여러 주체들 간 협업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의 다양한 사업 주체들이 각자의 특성에 맞도록 6차산업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가공센터 등을 확대하여 영세 농가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역량 있는 귀농·귀촌인 및 청년 인력을 대상으로 지역 단위의 6차산업화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성을 기르도록 함.

□ 지역의 민간 부문이 중심을 이루는 사업 추진체계를 지향

○ 지역의 민간 주체들이 주도하는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아 6차산업화를 추진

- 농가 및 사업체 역량, 자본 등이 미비한 농촌 여건상 초창기에 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지역 내 민간 주체들이 6차산업화 활동을 이어받아 주도해가도록 함.
- 이를 위해 지자체들로 하여금 6차산업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 부문 육성 및 인큐베이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
 - ※ 협동조합들이 중심이 되는 이탈리아 농촌에서도 민간 부문 주체들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컨소시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해가는 내발적 지역발전 방식을 추구

○ 지역별 6차산업화 추진 단위는 품목 특성, 가치사슬 형성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지구별로 적합한 공간 범위를 설정

- 사업 참여 주체들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 협력과 공동활동, 지속적인 상호 학습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공간 범위에서 혁신 활동이 촉발됨.
- 따라서 혁신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공간 범위 설정의 요건임.

“

민간 부문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과
중앙정부 사업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

”

“

6차산업 관련 제품의
소비 기반 확충 및
도농 파트너십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

□ 6차산업화 추진 지역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중앙정부 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지역의 사업 추진 주체들이 정부의 여러 정책 수단들을 6차산업화
자원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제공
 - 생산·가공·유통·농촌관광·로컬푸드 등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6차산
업화 지구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촌산업 분야 이외에도 지역개발사업, 귀농·귀촌 및 인력 양성, 중
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분야 사업도 지역 단
위 6차산업화를 위해 종합적으로 지원 가능
 - 농식품부 정책 수단에 한정하지 않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의 협업
및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다
양한 부처별 정책 수단을 제공토록 함.

□ 공급 중심의 6차산업화 외연 확대 전략에서 벗어나 관련 제품·서비스에
대한 소비 기반 확충 전략을 본격 추진

- 6차산업 관련 제품의 시장 창출과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을 중
앙정부 차원에서 확대 추진할 단계임.
 - 그동안 6차산업 활동 참여 법인 및 농가 확대를 통해 공급 기반을 확
대하는 데 주력하였지만, 일부 소비자를 제외하고는 관련 제품·서비
스 구매 의향이 높지 않고 다양한 6차산업화 세분 시장도 발달되지
않은 상황임.
- 6차산업 관련 제품이 소비자에게 차별성 있는 제품으로 인식되고
독자적 시장을 확보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인증제도 등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
 - 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를 포함해 실제 제품 품질 관리, 명성 유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틈새시장의
창출을 유도할 필요
 - 지자체 차원에서도 농촌관광 등 지역 방문 수요와 연계해서 가공제품
의 개발 및 판매를 촉진하는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

▣ **도농 파트너십을 통한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과제**

- 6차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도시와 농촌의 파트너십 구축 전략에 대해
향후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
 - 지금까지는 6차산업화 정책을 통해 개별 지자체 내에서의 융복합활동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도시 부문과의 연계·협력 수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음.
 - 수요시장 확보와 기술 및 서비스 연계, 인적 자원 교류 등 다양한 측
면에서 도농 파트너십이 6차산업 성장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이에 대한 후속 연구 및 전략 마련이 요구됨.
 - ※ OECD(2013) 사례 분석 결과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교류의 긴밀성
정도에 따라 인구 및 소득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2016년

- 제123호 지역 단위 6차산업화의 추진 방향과 과제(정도채, 성주인, 심재현)
- 제122호 곤충산업 실태와 육성정책 방향(김연중, 박영구)
- 제121호 한·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 제120호 2016년 10대 농정 이슈(송미령, 김홍상, 박준기 등)

2015년

- 제119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5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118호 닭고기 수급 불균형과 파급 영향(우병준, 김형진)
- 제117호 2015년 김장철 채소류 수급 전망과 절임배추 소비특성 분석
(최병옥, 송성환, 노호영, 윤선희, 이형용, 노수정)
- 제116호 쌀, 김치, 삼계탕 대중국 수출 검역협상 타결과 과제(정민국, 전형진, 김태훈, 우병준, 문한필)
- 제115호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대응전략(정학균, 김창길)
- 제114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농업분야 협상결과와 시사점(이상현, 김종인, 정대희, 안수정)
- 제113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에 따른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
(이대섭, 최민정, 하경진, 김동훈)
- 제112호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 평가와 향후 과제(박준기,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11호 김치의 한·중 검역협상 동향과 수출 확대방안(최병옥, 노호영)
- 제110호 주요 농림축산물의 2015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박기환, 우병준, 김태훈, 최병옥, 장철수, 최지현)
- 제109호 대한민국 성장의 대지, 농업·농촌 70년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송미령, 문한필, 김미복, 성주인, 임지은)
- 제108호 2015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07호 최근 소 값 동향과 전망(이형우, 우병준)
- 제106호 한·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시사점(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 제105호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정은미)
- 제104호 할랄 농식품의 한일 대응 실태와 과제(박기환)
- 제103호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정책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현)
- 제102호 한·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
- 제101호 2015년 주요 농정이슈(황의식, 이계임, 성주인)

2014년

- 제100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4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99호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직불제 개선방향(정학균, 김창길, 한석호, 서강철)
- 제98호 한·중 FTA 타결과 농업 부문의 과제(어명근, 이병훈, 정대희)
- 제97호 밭농업의 쟁점과 발전방향(채광석, 김홍상, 이용선, 김경필, 국승용, 문한필)
- 제96호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 현황과 과제(어명근, 이병훈)
- 제95호 농업구조 변화와 농가경제,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박성재)
- 제94호 지역 간 연계협력 현황을 통해서 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과제(송미령, 권인혜)
- 제93호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김태훈, 송준호, 박동규)
- 제92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4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박기환, 김태훈, 지인배, 최병옥, 박동규)



- 제91호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개선 방향(문한필, 정민국, 남경수, 정호연)
- 제90호 농어촌특별세 운용 실태와 정책과제(박준기, 김미복)
- 제89호 한·EU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정민국)
- 제88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조미형)
- 제87호 소나무재선충병과 방제 정책 과제(이요한, 석현덕, 구자춘)
- 제86호 한·칠레 FTA 10년, 농업분야 이행평가(문한필, 정호연, 김수지, 김영준)
- 제85호 한·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 제84호 AI 발생 및 대응 상황과 방역정책 추진 방향(허덕, 한봉희, 김형진, 이형우, 김진년)
- 제83호 2014년 주요 농정이슈와 정책 과제(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2013년

- 제82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81호 중국 농업의 현황과 농정 동향(정정길)
- 제80호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 현황과 주요 과제(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 제79호 산지축산의 유럽 사례 및 시사점(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 제78호 2013년 김장철 주요 채소의 수급 전망(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 제77호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육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허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 제76호 해외조림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 제75호 쌀 직불제의 합리적 운용 방안(박동규, 승준호)
- 제74호 협력적 산림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석현덕, 박소희)
- 제73호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송주호)
- 제72호 2014년 이후 한육우 사육과 가격 전망(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 제71호 지역임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석현덕, 안선진)
- 제70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3년 추석 가격 전망(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승준호)
-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설정과 창업방법(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 제68호 주요국의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실태와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방안(정호근, 석현덕)
- 제67호 2013년 7월 북한의 수해 상황과 경제적 피해(권태진, 임수경)
-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 위한 농촌관광의 발전 방향(박시현)
- 제65호 유기농업의 기술 수요와 기술개발 로드맵(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64호 농업총조사에 의한 시·군별 농업경쟁력 평가(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 제63호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환경서비스의 정책 방향(석현덕, 안선진)
- 제62호 한·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 제61호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 제60호 창조경제,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증진 전략(박준기)
- 제59호 사료 원료의 수입 실태와 수입가격지수 산정(성명환, 윤재웅)
- 제58호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농식품 수출의 영향과 과제(박기환)
-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정원호, 최경환)
- 제56호 농촌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과 정책 과제(송미령)
- 제55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54호 산불 관리의 현황과 개선 과제(정호근, 박소희, 석현덕)

KREI 농정포커스 제123호

지역 단위 6차산업화의 추진 방향과 과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6. 5. 13.
발 행	2016. 5. 13.
발 행 인	최세균
편집위원	최지현, 우병준, 김수석, 김용렬, 조미형, 한석호, 문한필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인쇄사업소 02-2269-5523~4 dec5523@hanmail.net

ISBN: 978-89-6013-890-2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